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庚寅의 악몽을 씻어내자

풍성한 가을의 환희속에서 배부른 노래로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도 사람들은 실의에 빠진 채 탈진되고 지쳐가고 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상재기가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3년전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사상최대의 재해를 맞았던 기억이 있다. 서해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유출사고로 가슴을 저며내는 아픔도 겪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 구슬땀을 흘리며 사람이 두려워 몸부림치는 자연의 통곡을 들었던 기억이 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재해인 것이다. 살기좋은 땅, 낙토서산(樂土瑞山)이라는 성스러운 지명(地名) 앞에 늘 감사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해마다 우리 나라에 오는 자연재해는 남의 동네일로 알고 살아왔는데... 농경지는 백수피해로 망가지고 서산의 자랑인 아름다운 소나무는 모두 부러지고 뿌리채 뽑혔으며 시설물의 파손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사상최고의 재해를 당한 것이다.

6·25전쟁 60돌을 맞은 해이고 경술국치 100년을 맞으며 새삼스럽게 다짐했던 연초의 각오가 물거품이 되었다 싶어 씁쓸하다. 1950년의 경인(庚寅)년에는 전쟁이 났고 1890년 경인년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록이 있다.

금년의 경인년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선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들을 경악게 했다. 태풍 곤파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음양오행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연치고는 무언가 씁쓸하기만 하다. 경인(庚寅)년은 양(陽)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부딪히고 파괴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도 서산은 역시 낙토(살기좋은 땅)인가 보다. 인심이 흥흥해야 할 즈음인데도 도처에서는 서로 돕고 위로하는 낭보(朗報)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 민족이 그랬듯이 다시 추스르고 일어서는 재기의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정도 짙은 꼬덕없이 복구되리라 본다.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경인(庚寅)의 악몽을 물리쳐야겠다.

서산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민속학적 고찰

장 경 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현존하는 고려말 염직 유물
- III. 고려말기의 염직제도와 제작 장인
- IV. 문수사 불복장직물의 문양 비교
- V. 맺음말

I. 머리말

서산 문수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40번지 상왕산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의 말사이다. 문수사는 해미읍성과 개심사를 지나 2km쯤 야트막한 가야산 자락을 바라보며 맑고 푸른 계곡물을 건너 야트막한 언덕 아래 아담한 사역이 마련되어 있다. 평평하게 조성된 경내에 2m 높이의 작은 석탑을 중심으로 북쪽 중앙에 극락보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산신각이, 다시 왼쪽에는 요사채 서너 채가 나지막히 지붕을 잇달아 배치되어 있는 아담한 사찰이다.¹⁾

문수사에는 고려말기 1346년에 조성된 불상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세워진 극락보전과 1774년(영조 50)에 조성된 지장보살도, 1892년(고종 29)에 제작된 후불탱화와 신증탱화, 그리고 1905년에

조성된 칠성탱화 등 여러 점의 성보유물을 두루 가지고 있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1346년 금동아미타불상을 문수사에 봉안할 당시 불상에 복장했던 직물로서, 1973년 문화재관리국이 극락전 금동여래좌상을 조사할 때 발견된 것이다. 본래 불복장물(佛腹藏物)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불교적 상징성을 띤 물품으로서,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배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하는 구성 요소이다. 게다가 이러한 복장 유물을 통해 당시의 신앙 경향이나 사회상 등 민속학적 상황까지 알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복장물이 나왔던 금동불은 도난되어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불복장물은 동국대 박물관에 이관되었다가 근래에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산 문수사의 복장직물 100여점을 대상으로 민속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²⁾ 이를 위해 우선 현존하는 14세기 염직유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14세기 염직을 제작할 수 있던 제도와 장인에 대해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문수사의 염직과 현존하는 14세기 염직의 문양을 비교하여 당시 공예기술적 수준을 밝혀보고자 한다.³⁾

II. 현존하는 고려말 염직 유물

고려말기는 고려가 원에 복속한 이후,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기 이전까지인데⁴⁾, 고려말의 염직유물로 현재까지 알려진 예는 14세기 초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이것들은 주로 불상에 복장되었던 유물이기 때문에 그 복장기록에 의하여 염직물들의 하한연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염직물 220여 점은 아미타불복장의 복장기록에 의하여 고려 1302년에 넣은 것을 알 수 있고⁵⁾, 봉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여래좌상에는 1312년에 염직물을 넣었으며⁶⁾, 1322년 청동천수관음보살의 복장에도 염직이 포함되어 있으며⁷⁾, 1346년 서산 문수사

1) 서산 문수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글이 코리아템플에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www.koreatemple.net . 문수사.

2) 본 연구자는 1989년 석사학위 논문을 서산 문수사의 직물을 비롯한 염직으로 쓴 바 있었고, 이후 이를 학회지에 실은 바 있어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장경희, 「고려말, 조선전기의 염직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8 ; 장경희, 「14세기의 고려 염직연구」, 『미술사학연구』, 190.191, 한국미술사학회, 1991.9, pp.31-68.

3) 서산 문수사의 직물을 토대로 한 불복장 직물문양에 대해서는 『지심귀명례, 불복장직물문양집』,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2004.

4) 박용운, 『고려시대사』(상), 일지사, 1985. pp.11-14.

5) 김미자, 조효숙, 「1302년 아미타불복장 직물의 분석」, 『1302년 아미타불 복장물의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105-144.

6) 천혜봉, 「봉림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전적」, 『서지학』7, 한국서지학회, 1982.11.

7) 허홍식, 「1322년 새로운 불복장 자료」,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1988, pp.128-144 ; 허홍식, 「14세기의 새로운 불복장자료」, 『문화재』제19호, 문화재관리국, 1988, pp.46-58.

〈14세기 복장 직물의 사례〉

연대	원소장처	복장된 불상	염직물수량	현소장처	최초조사자
1302	미상	아미타불	220여점	온양민속박물관	다수(1990)
1312	봉림사	철조아미타불	다수	재복장	천혜봉
1322	미상	청동천수관음보살	다수	대구 백종흠	허흥식(1985)
1346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100여점	수덕사 성보박물관	강인구(1975)
1346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불	100여점	국립중앙박물관	민영규(1966)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중에도 염직물 10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⁸⁾. 역시 같은 1346년에 해당 되는 청양 장곡사 철불좌상에서도 100여 점이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⁹⁾. 이들 불상에 복장물로 포함되어 있는 직물유물은 다음의 표와 같다.

1302년 불복장을 비롯하여 14세기의 복장유물 속에는 염직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불사리를 넣은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품이 들어가고 남은 그 주변의 공간을 염직물로 채워 흔들림을 방지하는, 즉 복장품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넣어진 경우가 많다. 이것은 복장품으로 함께 나오는 다라니경들이 복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구겨서 공간을 메꾸는 것과 기능상 일치한다. 예를 들어 1302년 불복장의 경우 발원문 4점, 옷 3점, 주머니 5점, 오색실을 비롯하여 200여점의 크고작은 염직 조각들이 복장되어 있었고, 1346년 서산 문수사의 불복장으로도 발원문과 옷 1점, 보자기 5점, 주머니 4점, 오색실과 100여점의 섬유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산 문수사는 불상조성발원문에 보면 제작연대는 “대원 지정육년 병술구월초파일(大元至正六年丙戌九月初八日)”이라고 되어 있어 고려 1346년(충목왕 2)에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장물로는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과 『의천속장경간기(義天續藏經刊記)』, 백저포(白苧袍) 등을 비롯하여 100여점의 직물 조각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모두 국문학사와 인쇄발달사, 그리고 고려시대 복식사 및 직물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서산 문수사의 복장품 경우 발원문에서는 왕실의 귀족 뿐 아니라 노비들의 이름과 몽고계의 이름도 함께 보이고 있다. 즉 300여명의 발원자 중에는 대호군 洪瑞와 부인 최씨를 비롯하여 郡夫人 李氏처럼 관작을 받은 상위 계층을 비롯하여, 그밖에 俞勿伊, 夫介, 石伊, 加伊, 熊伊처럼 성이 없는 비천한 노비들의 이름이 더 많이 적혀 있었으며, 金良達取, 達哥金天叔寄 같이

8) 강인구,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미술자료』 제18호, 1975.12, pp.1-18.

9) 민영규, 「장곡사 고려 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제14-15집, 1966.6, pp.237-245.

고려인이면서 몽고에 협력한 부원세력이나, 伯顔朶兒 등과 같은 몽고계의 이름도 섞여 있었다¹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불상을 제작할 때 최상위 계층부터 최하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회상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들이 발원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공으로 넣은 염직유물은 모두다 그 당시 고려에서 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아울러 최고 수준의 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발원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는 것은 14세기 당시 고려와 원나라의 보편적인 염직수준을 반영하는 자료가 아닌가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복장되어 있는 염직유물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데, 그것은 이들 유물들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확실하면서 유일한 예라는 점이고, 감상위주의 회화나 예배대상으로서의 불상과 달리 공예미술은 한두 작품만으로는 그 시대의 기술이나 제작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수백여점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고려 14세기 염직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공예기술적 수준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이들 염직유물들은 방충과 방부 및 방습에 탁월한 기능을 지닌 옷칠로 마감한 불상에 복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충해의 피해를 입지 않고 마치 요즈음 제작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태가 우수하여, 이점은 향후 염직물을 오래 보존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환경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마치 요즈음 제작한 것처럼 보일 정도가 보존 상태가 우수한 14세기 염직유물 중에서 1346년 서산 문수사 불복장 염직유물을 대상으로 당시 원나라의 염직유물 및 고려시대의 다른 공예품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고려말기의 염직제도와 제작 장인

고려말기의 염직관청은 원의 제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염색을 관장하던 도염서와 직조를 담당하던 잡직국을 통합하여 직염국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분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¹¹⁾. 어의를 봉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상의국은 충선왕 때에 장복서라고 불렀다가 공민왕 때에는 몇 차례의 명칭 변화를 겪은 뒤 공양왕 3년에 공조에 병합되었다¹²⁾.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기구의 기능이나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나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

10) 위의 논문.

11) 『고려사』 권77, 지31. 잡직서조, 도염서조.

12) 『고려사』 권76, 지30. 백관지1.

김정호

1804(순조 5)~1864(고종 1)

호자는 백원, 호는 고산자,
본관은 청도

● 황해도 출신, 어려서 서울로 이주, 미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학문을 열심히 닦았으며, 정밀한 지도의 작성에 뜻을 품었다. 그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지지란 역대 제도와 문물, 풍습등과 지역과의 관계를 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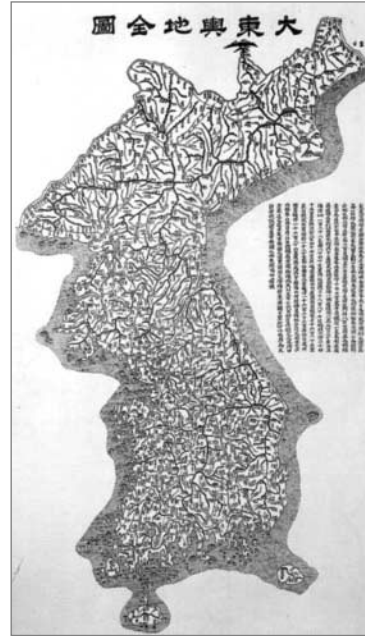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역사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의 지리학자

● 그는 3개의 지지를 남겼는데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가 그것이다.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30여년간 노력끝에 순조 말년 <청구도>2첩을 완성하였다. 그 후 <청구도>에 불만을 느끼고 다시 전국을 답사하여 1861년(철종 12) <대동여지도>2첩을 완성,

교간하였다. 또한 <여지승람>의 착오를 정정하고 보필하기 위해, 32권 15책의 <대동지지>를 집필, 이 밖에 <지구도>도 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전국 8도를 두루 답사했으며, 백두산을 7~8차례 왕래 수십년간을 돌아다녔다. 한쪽한쪽 실제로 측량을 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손수 그려서 판각하였다. 대동여지도의 정밀성과 풍부한 내용은, 후세의 지도제작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지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대동여지도)

[文獻] 立一年：金正浩, 洪以燮：大東輿地圖 等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 1977년

제작작가 : 운보 김기창

명정제공 및 저작권자 : (재)운보문화재단

영정크기 : 84cm X 121cm

소장지및소장인 : 국립현대미술관자는 백원, 호는 고산자, 본관은 청도





손돌풍

■ 손돌풍의 유래

음력 10월 20일에 관례적으로 불어오는 심한 바람을 손돌풍 혹은 손석풍이라 한다. 이 손돌풍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 배경설화인 '손돌풍 설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손돌목의 지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손돌목 전설·손돌 전설이라고도 하며, 이는 음력 10월 20일께 부는 차가운 바람신인 손돌신의 신화이며, 경기도 김포군과 강화군 사이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여울의 지명유래담이다. 손돌설화의 기본형은 손돌목·손돌무덤이 있는 김포·강화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손돌풍 설화의 전형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왕이 강화로 피난을 할 때 손돌이란 뱃사공이 왕과 그 일행을 배에 태워서 건너게 되었다. 손돌은 안전한 물길을 택하여 초지(草芝)의 여울로 배를 몰았다. 마음이 급한 왕은 손돌이 자신을 해치려고 배를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 손돌의 목을 베도록 명하였다. 이때 손돌은 왕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배에



있는 박을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몽고군을 피하며 험한 물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손돌을 죽이자 적이 뒤따라 오므로 왕과 그 일행은 손돌의 말대로 박을 띄워 무사히 강화로 피할 수 있었다. 왕은 손돌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였다.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이 10월 20일이

였으므로, 그 뒤 이날이 되면 손돌의 원혼에 의해 매년 추운 바람이 불어오므로 이를 손돌풍이라 하고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 하게 되었다.

손돌목은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곳으로 바닷물이 급류를 이루고 있어서 지금도 배가 지나가면 조심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 손돌풍이 부는 날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또 어부들은 이날 바다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평인들은 겨울옷을 마련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손돌풍에 관해서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그 기록이 보이며 《열양세시기(溧陽歲時記)》10월 조에는 "강화도로 가는 바다 가운데에 암초가 있는데, 그곳을 손돌목이라 한다. 그리고 방언에 산수가 험하고 막힌 곳을 목이라 한다. 일찍이 뱃사공 손돌이란 자가 있었는데, 10월 20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그곳에서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지금도 이날이 되면 바람이 불고 추위가 매우 극렬하므로 뱃사공들은 경계를 하고, 집에 있는 사람도 털옷을 준비한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후로 봐서 이때가 되면 계절풍이 불고 따라서 몹시 추워지므로, 여기에 손돌의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서 이러한 풍속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해미읍성 발굴조사는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0년 처음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해미읍성의 송림지역의 일부를 제외한 평탄대지 전체와 성벽의 축조방법을 파악하기위해 성벽 절개조사 2개 지점, 해미읍성 외곽 북문 주변지역과 진남문 외곽지역에 해자조사를 통하여 해미읍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예연구사
이 강 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는 모두 35동이다. 1·2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동헌과 내아, 객사건물들이 복원되었다. 3차에서 7차 발굴조사를 통해 해자가 복원되고, 읍성내부의 옥사, 민가 등이 복원되었다. 8차 발굴조사부터 12차 발굴조사에서는 해미읍성 발굴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읍성연구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해미읍성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별로는 크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건물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 건물지는 11차 조사 지역인 서문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해미읍성 축조 이전의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고려시대 건물지는 해미읍성 축조 이전에 확인되는 건물지로서 그 의미가 있다.



발굴조사 지역 현황

조선시대 건물지는 조선초기 병영과 관련된 시설과 조선중기부터 일제시대까지는 해미관아와 관련된 건물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건물지들은 해미읍성 중심부 평탄지와 서문의 북쪽 성벽에서 확인되고 있다. 옥사 길 건너편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해미읍성에 확인된 건물지 중 가장 웅장한 규모를 하고 있다. 중심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며, 건물의 가운데에는 돌로 부석한 담도를 만들었다. 담도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정면 18칸, 측면 1칸의 건물지가 있는데, 이는 창고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북쪽으로 10칸, 남쪽으로 8칸만 확인되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중심건물지가 축소되고, 창고건물지가 폐기되며, 부속건물지들이 조성되어 새로운 객사의 부속시설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중기에 건물지들은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청주의 상당산성으로 이설되면서, 초기 병영의 성격이 축소되고, 해미관아의 행정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는 해미읍성 중심부에 많은 건물지들이 새로이 조성되고, 기존의 건물이 축소 및 폐기되었다. 특히 읍성의 북서쪽에는 조선 전기에 축조된 건물지 1동과 함께 6동의 건물지가 축조되어 '口' 자형 배치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읍성의 북서쪽에 읍성 운용을 위해 부속건물지들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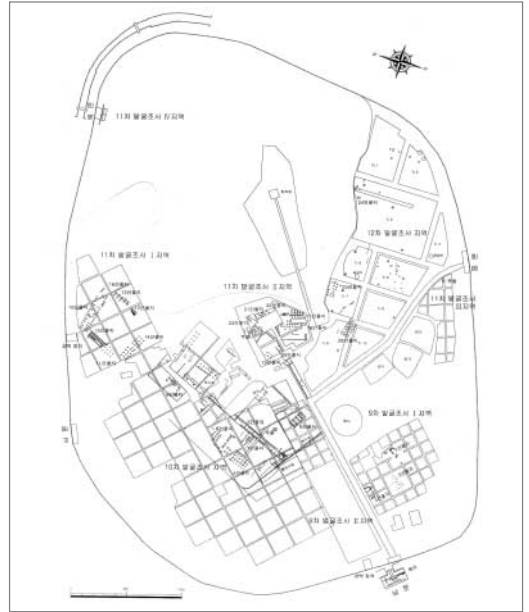
성벽 조사는 읍성 내 남문과 서문사이 남문에서 약 30m부근과 서문과 북문사이에 서문에서 약 80m 떨어진 2곳에서 실시하였다. 읍성의 성벽은 외벽은 석축하고, 내부는 돌과 흙을 섞어쌓은 내탁법으로 축조하였다. 다만 성문이 있는 네 곳은 성 안쪽과 바깥쪽은 모두 돌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저부, 뒷채움석, 내탁부 순서로 되어있다. 성벽의 지면으로 지하 약 1.5m 굴착하고, 흙을 얇게 깔아 바닥면을 다졌다. 이 위에 외벽은 석축하면서 안쪽으로는 할석을 뒷채움하고, 이 뒷채움석은 3단의 계단식으로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뒷채움석 위로 두텁게 복토한 흙다짐 층으로 겹겹이 다져가면서 조성하여 성벽 내부를 이루고 있다.

해자는 북벽을 중심으로 주변 약 450m가 확인조사 되었고, 진남문 외곽 남쪽에서 약 25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해자는 확인된 이 곳 이외에 성벽 전체에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평지의 해자시설은 일부가 훼손되었을 것이다. 해자는 모두 2번에 걸쳐 축조하였는데, 1차 해자는 너비 약 6~7m정도이며, 깊이는 2~2.5m정도로 수직으로 축조하였다. 2차 해자는 깊이 약 2~3m정도이며, 해자너비는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사다리꼴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1872년에 발간된 해미현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건물의 배치 뿐만 아니라 읍성 내 이동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읍성의 배치와 발굴조사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해미읍성의 정비와 복원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미읍성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병영시설인 건물과 조선중기 이후의 읍성으로서 기능하였을 당시 건물에 대한 복원문제이다. 해미읍성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읍성 축조이전시기부터 시대순으로 복원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지의 연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시대를 복원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점은 일반인들에게 해미읍성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해미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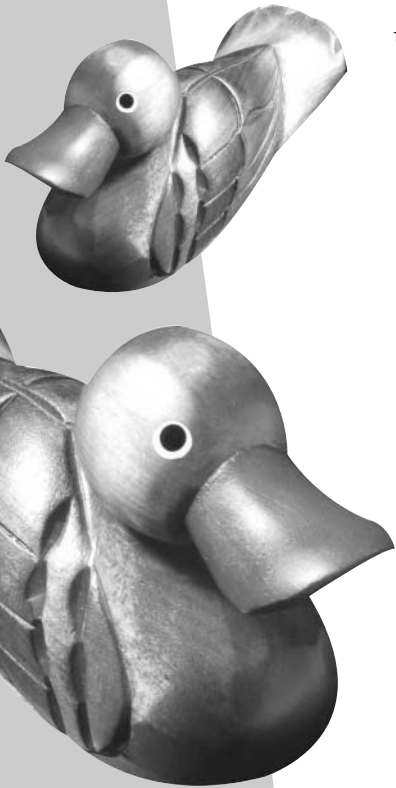


발굴조사 유적평면도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의례들이 여러 가지 있다.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혼례(婚禮)다. 혼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집단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성에 대한 독점적 자유의 허용과 이에 대한 인증 절차이기도 한다.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자유와 허용을 인증하는 사회적 통과의례인 셈이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이제 너희 남녀는 두 의지에 따라 성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혼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큰 일[大事]'로서, 여러 가지 관습적 가치관이 굳어져 하나의 풍습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의 절차로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인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이룬다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두 가문(家門)의 결합이기도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물론 개인의 결합만을 중요시하는 서양의 경우 개인이 혼인을 결정하고, 혼인을 하면 새로운 단위의



가계(家計)를 영위하기 때문에 혼례보다는 혼인 그 자체를 더 중요시하고, 절차 역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두 가문, 혹은 두 가족의 결합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혼인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혼인을 한 후에도 기존의 공동 가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시집살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혼인을 정당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혼인의례(婚姻儀禮)를 중요시하고, 그 절차와 형식 역시 중요시된다. 따라서 혼례는 남녀 두 사람의 혼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혼인하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혼인하다’ 는 말의 혼(婚)은 계집 녀(女) 자와 어두울[밤] 혼(昏) 자가 합쳐진 글자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여자가 저녁에 큰일을 치르다’ 라는 뜻이다. 여자가 저녁에 치르는 큰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성지합(二姓之合)이다. 그래서인지 옛 책에서는 혼례를 ‘婚禮’ 가 아닌 ‘昏禮’ 로 적고 있다. 『예기』에서도 혼례를 ‘昏禮’ 라 적고 있으니, 이상하기도 하다. 그런데 글자가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추적하면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혼(昏)은 낮인 양(陽)이 지나고 밤인 음(陰)이 온다는 속뜻을 지니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밤을 가리키는 것이니昏禮는 결국 ‘밤에 행하는 예식’ 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긴 하지만 실은 원래의 혼례가 밤에 이루어진 사실을 반영하는 말이다.

오늘날 문화적 전통으로 간주하는 유교식 혼례는 고려 후기 『가례(家禮)』의 유입과 시기를 같이한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가례(家禮)』에서 규정하는 관혼상제의 네 가지 예법은 한민족의 일생의례를 규정하는 규범으로 통하게 된다. 이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義)』를 비롯한 다양한 예서(禮書)에서도 『가례(家禮)』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례 역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이라는 네 개의 의례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전통혼례는 서로의 혼례의사를 타진하는 의혼, 혼약이 이루어져 사주를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납채, 신부용 혼수와 혼서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 납패 그리고 혼례를 치루는 친영의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친영의 예는 도입 초기부터 왕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절차였었지, 일반 백성들은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도 조선 말기가 되면 복수결혼(福手結婚)이나 작수성례(酌水成禮)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교식 혼례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하게 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신식결혼은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 결혼'이 처음이었다.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계명구락부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현대적인 모양의 결혼식이 보급된다. 신식혼례라고도 부르는 현대식 혼례는 문화적 전통에 따른 유교식 혼례를 구식혼례라 치부한 결과 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현대식 결혼식이 전통혼례와 크게 다른 점 식장과 복식이다. 현대식 혼례에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으며, 대개는 전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오늘날에도 중매혼이 많지만 연애혼이나 중매와 연애를 절충한 사례도 많다. 중매혼이라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가 맞선을 보고 일정 기간 연애를 한 후에 혼인을 결정하기도 하며, 특히 전통혼례에는 없는 약혼식이 현대 혼례에서는 대단히 중요시 되어, 사주를 보내는 절차 대신 약혼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글쓴이 소개

조 승 연

- 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인류학박사
- 영남대 문과대학 문화인류학과
- 영남대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 박사

『논어』

2,500



『논어(論語)』는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누는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다. 공자에게는 삼천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 중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등 공자가 강조한 육예(六藝)에 통달한 인물만 해도 77명 정도. 공자 학단(學團)은 ‘배움(學)’에 기반한 인류 최초의 공부 공동체였던 셈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를 저술하면서 공자(孔子)의 일생을 제후(諸侯)들의 기록인 <세가(世家)>편에 넣었다. 평생 정치권의 최일선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공자가 제후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마천이 공자의 뛰어난 제자들을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이란 이름으로 <열전(列傳)>편에 따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말이 나온 김에 공자의 제자들부터 잠깐 살펴보자.

안연(顏淵)은 노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회(回)이다. 안연은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유명하다. 『논어』에서 공자는 안회에 대해 여러 차례 그 청빈함과 인(仁)한 성품을 칭찬했다. “어질구나 안회야,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는 바인데, 안회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안회는 참으로 어질구나!”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총명했지만, 불행히도 공자보다 앞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자공(子貢)은 위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사(賜)이다. 외교적 역량이 뛰어났으며 재리(財理)에 밝았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을 때, 자공은 제나라·오나라·월나라·진(晉)나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노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출했다. 한편 자공은 공자의 말년을 지킨 제자



(논어)

로도 유명한데, 스승의 삼년상이 끝난 이후에도 자공은 스스로 이년의 상례 기간을 더 가졌다.

공자의 보디가드 자로(子路)의 이름은 유(由)이다. 자로는 공자 사단에서 가장 용감하고 팔팔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자로에 대한 공자의 신뢰는 두터웠는데, 자로는 그 자신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끝내 당시 노나라의 정치 싸움 속에 희생되었다. 당시 자로의 시체가 소금에 절여져 되돌아온 이후, 공자는 두 번 다시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관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큰 울림이 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우리에게 「논어(論語)」는 어떤 책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논어」에 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하나는 물론 「논어」와 공자에 대한 존경과 숭모의 태도다. 이곳에서 공자는 전 인류의 스승이며, 「논어」는 그러한 스승의 위대한 어록이다. 어떤 의미에서 「논어」는 그냥 아는 책, 혹은 ‘읽은 것 같은’ 고전일지도 모르겠다. 배우지 않고도 알고 읽지 않아도 아는 책으로서의 「논어」.

「논어」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다. 공자는 보수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유학 사상의 원류이며, 「논어」는 공자의 정치적 욕망이 투영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 이들에게 유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유이기에 시급히 청산해야 할 인습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내 안의 타자로서의 「논어」.

하지만 「논어」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이야말로 엄밀히 말하면 ‘반(反)논어적’인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들의 시선에는 모두 「논어」를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단정해버리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동아시아 사상사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의 한 사람인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논어」의 가치가 이처럼 쉬운 몇 마디의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 다섯에 배움(學)에 뜻을 두었는데, 서른이 되자 자신을 얻었고, 마흔에 이르러서는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오십쯤에는 능력과 한계 [천명]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육십이 되자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어졌는데, 일흔에 이르자 내 마음이 내키는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정도를 넘지 않았다.
「논어」 <위정(爲政)>

공자와 그의 사상 속에서 ‘배움’의 가치는 여러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스승 공자의 특별함은 그가 가르침이 아닌 ‘배움(學)’에서 출발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배움’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벌인 우정의 말(語)잔치다. 더불어 이들의 대화에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관한 열정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논어」의 말들이 하나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논어」는 과거의 영광보다는 지금 현재의 실제적 용법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 「논어」를 처세-실용서류로 만들자는 말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논어」는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닌 현대의 말씀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논어」는 매 시대마다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아쉽지만 「논어」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덕담집(德談集)’ 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공자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 이후 60여 년간 쉼 없는 자기 변신의 일생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때 배움이란 무엇인가. 이 간단하고도 간절했던 공자의 물음으로부터 동아시아 사상의 한 축이 근본한다. 삼십의 홀로서기와 사십의 의혹 없음, 오십의 천명(天命)과 육십의 이순(耳順)!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칠십세의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까지, 어느 세대든 우리는 「논어」와 접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천오백년전 공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찾겠다는 용기와 실천이 아닐까.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클레이아트



✧ 클레이아트의 정의

'클레이아트(Clay Art)'는 어린이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EQ(감성지수) 개발 및 창의력, 상상력 향상을 도와주는 공작용 재료로써, 인체에 완전 무해한 수용성 수지 필러(Filler)로 구성된 인조 점토이다.

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면 어느 작품이라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응용 범위가 대단히 다양하다. 칼라믹스 점토 처럼 차갑지 않고, 훨씬 부드러우면서 색상이 선명하고, 색 호환이 뛰어나 두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 원하는 색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완전히 마른 후라도 절대 갈라지지 않으며 광택제를 이용하여 더욱 선명하고 윤기있게 표현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백 춘 자
클레이아트강사

- 던지면 통통 튼다.
-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 손에 묻어나지 않는다.
- 공기중에 자연적으로 굳는다.
- 세상의 어떤 점토보다도 가볍다.
- 풀이나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붙는다.



✧ 클레이아트의 용도와 쓰임

클레이아트는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한 무독성 칼라수지점토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공예다. 손에 묻거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공작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손이 깨끗하고, 자리가 더러워지지 않아 뒷정리가 간편하며 물감처럼 색을 섞을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주무르고 만들면서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어 유아기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미술 준비물로 흔히 쓰는 기존의 찰흙이 흙색의 한 가지 색깔만 낼 수 있고, 작품을 만들거나 건조 시에 부서지거나 가루가 많이 나는데에 비해, 가루가 없고 색의 혼합이 용이하다. 무궁무진한 색을 창출 할수 있고, 주무르거나 모양의 완성도를 비교하여 볼 때 찰흙에 비해 칼라점토는 클레이공예가 가질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색가지의 점토로 작품을 만들면, 아이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은 생각 이상 이라고 한다. 손근육을 많이 쓸 수 있고, 말랑말랑한 점토이다보니 아이들 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클레이 아트의 교육적 효과는 도형의 변환으로 입체물이 완성되므로 도형감각, 응용, 구성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뿐 아니라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생기고 아울러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으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작품 활동 후 학교나 가정에서 혹은 자신만의 장식품이나 귀중품이 되기도하는 클레이아트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세계최초 고대왕궁 재현

백제 문화 단지

백제문화는 삼국문화의 한 축으로서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고대 동방문화의 중심으로써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문화 강국이었음에도 그동안 고증 등이 미흡하여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이처럼 찬란했던 백제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년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3,276천㎡에 6,904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백제왕궁인 사비궁,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백제 개국초기의 궁성인 위례성, 백제의 대표적 고분을 보여주는 고분공원, 충남도민의 기증으로 조성된 백제의 숲, 백제역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최초의 백제사 전문박물관인 백제역사문화관이 1,400년전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대표적 고도로서 기존 시가지 내에 백제역사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기존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활용 보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 건너편 백마강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철저한 고증에 의거 5개 분야 중요 무형문화재(대목장, 단청장, 번와장, 각자장, 칠장)의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업으로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백제문화단지 중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사비성은 백제 사비왕궁 및 도성을 사비궁, 중궁전, 동궁전, 서궁전, 회랑 등으로 재현하여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굴된 부여 능산리 사찰을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이며 국내 최초로 백제목탑을 재현했다. 5층 목탑은 백제의 대표적 건축물로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건축기법으로 백제 특유의 하향식 공법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38m 높이의 초대형 목탑은 13층 높이의 아파트 규모로 웅장함 그 자체이다.

위례성은 건국초기의 생활상을 표현한 곳으로 토성, 목책 등의 방어시설과 백제 초기왕궁인 위례궁, 움집, 고상가옥 등의 주거시설과 생활시설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생활문화마을은 귀족, 군관, 중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별 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분공원에서는 백제시대의 대표적 고분으로 부여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석실분이 이전·복원 되어 있다.

기능촌 이외에도 국내 유일의 백제사 전문박물관인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역사와 문화의 종합전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축소모형으로 보여주거나 그래픽 또는 영상을 이용한 최첨단 기법을 통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은 한성, 웅진, 사비시대에서 부흥기까지 백제역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전시실에서는 그들의 삶속으로 직접 들어가 1400년전 백제농민들의 생활상, 복식문화,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제3전시실에서는 백제의 제사유적 및 요제형식 무령왕릉의 발굴 유물등 민간신앙과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통해 그들의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제4전시실은 당시 각 나라들과의 문화·교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인 백제문화단지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었다



(백제역사문화관)



(사비성-북소리공연)



(위례성전경)

명 칭 : 백제문화단지

시설현황 : 사비궁, 능사, 위례성,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역사문화관

관람시간 : 09:00~18:00(동절기 17:00까지)

관람료 : 6,000~9,000원(백제역사문화관 포함, 다자녀 가정, 단체 할인 가능)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공연 및 안내 : 041)830-3430, 830-3431

홈페이지 : <http://www.bhm.or.kr>

※외국인 전통식문화 체험시 박물관 관람 무료, 한국어 유료증 증명

작가 유용주와 떠나는 역사와 문학이 함께하는 기행

10월이 내게 준 선물

해미중학교 양 예 진

나는 언제나 바라왔다.

남들이 체험 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가 오기를.....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선물이 도착했다.

문학기행이라는 선물...

문학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의 눈빛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하는 종류와 그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미소 띤 얼굴로 변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얼굴에 어려우니까 시키지 마세요라는 글을 써놓고 다니는 부류에 속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가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문학을 세 가지 문장으로 단정지어주신 유용주 작가님의 강연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느끼는 것이 늘어갔다. 작가의 삶 속에 잠들어있던 철학을 머릿속에 정리하여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길지만 짧았던 강연 속에서 내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한 문장이 있다. '나를 통해 남을 비추고, 남을 통해 나를 비춰라' 남이 나를 비춰 주기만을 기다렸던 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충격 후에 온 것은 역시나 깨달음이었다. 내가 먼저 비추면 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로 받은 선물이다.

10월이 준 또 하나의 선물은 만남이다.

학교에서 매일 보는 얼굴도 좋지만 유명작가,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준 징검다리 같은 10월에게 정말 감사하다. 나와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만큼 큰 선물이 있을까? 어쩌면 아무 의미도 감동도 없는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이 하루를 특별하게 장식하는 작지만 큰, 크지만 작은 이 선물...

어떤 달, 어떤 날 보다도 특별한 이 밤을 간직하고 싶다.

유원장 이발소

음암중학교
이 하 늘

웨이브 파마하려다
아줌마 파마된 것처럼

머리 다듬으려다
단발머리 된 것처럼

일자 앞머리 자르려다
삐죽 삐죽 앞머리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 머리를 백지상태로
만든 세 글자 유 용 주



●●● 가족문화유적답사



늦가을에 가을정치를 느끼며...

김영란

아침 6시 30분에 등교할 때는 깨워야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셋...
약속이나 한 듯 세 아이 모두 일어나 발코니에 나가서
"언니 비와?"
"아니 안 오는것 같은데....."
"누나 그럼, 바람불어?"
"모르겠어."
"어서 창문 열어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서 세 아이 모두 잠까지 설치며 일어나
떠드는 소리에
"애들아, 왜이리 일찍 일어나서 그래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엄마 빨리 김밥 싸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빨리요. 엄마!"
나는 토요일에 시골집에 가서 일을 하고와 피곤했지만 아이들은
한껏 들뜬 목소리들이다.

평소 학교 가는 날이면 깨워야 일어나는 아이들이 오늘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는지 조금은 알미웠다.

얼마 전 아파트 게시판에 보고 문화원에서 가족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는 것을 보고 달려에 표시를 해두었다. 접수 당일 아이들을
모두 등교시키고 8시 30분에 총알처럼 달려가 접수를 했을 때 선착순40명 안에 들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동안 우리가족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 된 것처럼
너무 기뻐다. 아이들 아빠는 3교대 근무를 해서 우리가족은 여행을 자주 못 다녀서 말이다. 이번에도
아이 아빠는 오후 2시에 출근을 해야 해서 좀 미안했지만 아이들과 나는 각자 준비물과 간식을 챙겨



풍선처럼 부푼 마음으로 배낭을 하나씩 메고 "가족문화유적답사"를 가기 위해 출발하였다.

첫 목적지는 부석사! 김재신 해설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들도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다보니 어느새 부석사 입구에 도착하였다.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갈 때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위 풍경을 보며 "아~멋지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경치감상이 끝난 후엔 '액자 만들기' 시간을 갖고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기를 하였다. 큰아이는 알록달록 나비를, 둘째는 하트 머리핀을 한 개구리를, 셋째 우리 막둥이는 꽃으로 장식된 나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만들었다. 참가한 가족모두 작품전시를 했는데 어쩔 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는지...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가족 나들이를 갈 때면 도시락 준비에 아침부터 바쁘게 이번 여행은 부석사 안에서 점심을 먹게 되어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없어 아침이 여유로웠다. 스님들 공양이 끝난 다음 산채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을 때 구준표 님은 멋진 이상완 선생님과, 예쁘게 자꾸 성형한다는 김도연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고 달리며 너무 즐거웠다.

쑥스러워하고 소심한 우리 큰딸은 역시 나를 닮아서인지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고 그걸 보니 우리 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부석사를 내려와 우리는 간월암으로 떠났다. 물때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걸어서 간월암에 들어가 아이들과 간월암을 둘러보고 돌탑도 쌓고 소원도 빌었다.

시간이 촉박해서 서둘러 철새기행을 떠났다. 서산에 살면서도 우리 가족은 철새 기행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항상 찬바람 부는 계절이 오면 아이들 셋은 번갈아가면서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답사 일정에 천수만 철새기행도 있어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태풍 '곤파스'로 백수 피해를 입은 논을 보았을 때는 남일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아팠다.

한 시간 반 동안 해설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며 천수만 일대를 둘러보았다. 선생님의 질문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대답이 이어졌고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갔다. 새들을 보니 전에는 마냥 기러기구나 했지만 부리는 검은색이고 끝에 주황색 띠가 있는 것이 큰기러기이고 부리는 분홍색이고 이마가 흰 것은 쇠기러기, 노란색을 띤 주걱모양의 부리가 특징인 노랑 부리 저어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멋진 가창오리의 군무 수 백 마리가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에 낙조가 어우러진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새를 보며 둘째아이가 "엄마 빨논병아리도 있대요. 병아리가 어떻게 날아요?"하고 물으니 막둥이가 "날개가 있고 호수에서 연습을 해서 날 수 있을 꺼야"라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행복한 기운이 맴돌았다.

이번 여행으로 가족간의 사랑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준 서산문화원에 감사하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섭외한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으로 가까이 있지만 몰랐던 서산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새해 1월 1일이 되면 도비산에 가서 떡국도 먹고, 일출도 보자고 한다.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월대보름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 축제'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한다. 2011년에는 우리 고장에서 하는 축제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 가족간의 추억도 하나 둘 더 만들어 봐야겠다.

청명한 밤하늘의 가을철 가족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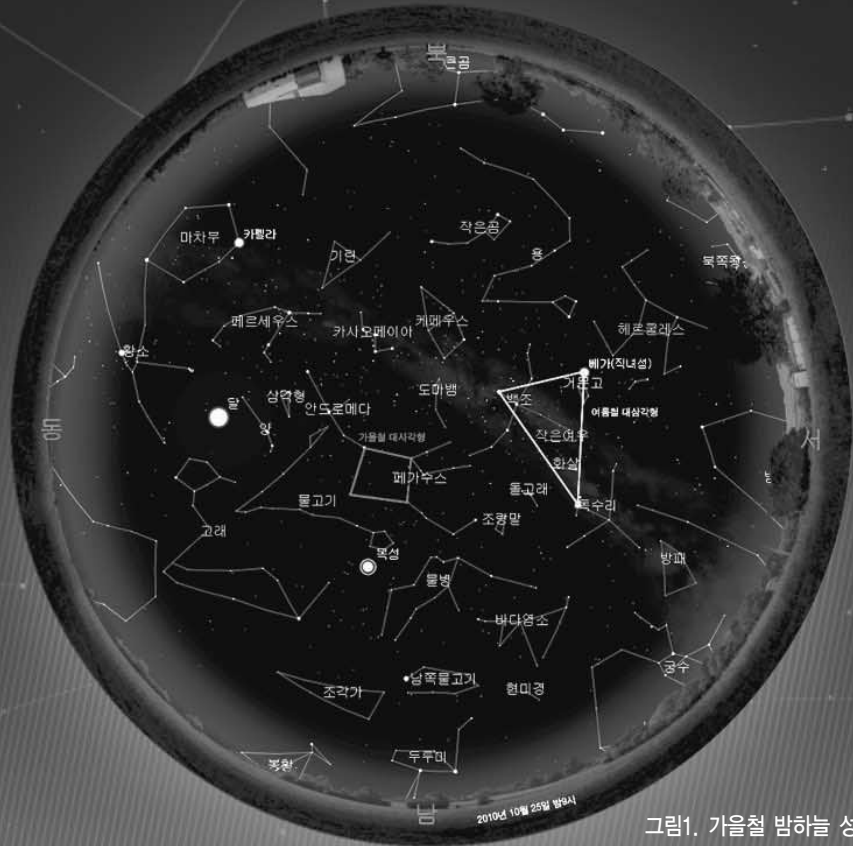


그림1. 가을철 밤하늘 성도

지난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를 뒤로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이번 여름엔 태풍 ‘곶파스’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탓인지 여름철 밤하늘에서 초롱초롱 빛나던 별들의 모습은 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태풍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는 요즘, 가을철 밤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가족 별자리가 웅기종기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마치 한권의 이야기책을 밤하늘에 뿌려놓은 것처럼 서로서로 연결되는 가을철 별자리 세계로 떠나보자!

가을철 길잡이 도형 ‘가을철 대사각형(페가수스 사각형)’

각 계절마다 대표하는 도형이 있다. 봄철에는 대사각형과 대곡선이 있으며, 여름철에도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가을철 밤하늘에는 커다란 사각형이 하늘 높이 걸려있다. (그림 1)
 이 사각형을 ‘가을철 대사각형’이라 부른다. 이 사각형은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 자리에 해당된다. 페가수스는 메두사를 사랑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여, 메두사의 피 한 방울과 바다의 불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림2. 페가수스자리

밤하늘에서는 페가수스가 막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커다란 사각형(가을철 대사각형)이 페가수스의 몸통에 해당되며, 사각형의 남서쪽 모서리에서 아래로 긴 선이 이어져 있는 별들이 페가수스의 긴 목과 얼굴이다. 북 서쪽 별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별들은 페가수스의 앞다리를 이룬다. 반면 뒷다리의 모습은 막 거품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선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림2)

페가수스의 머리 끝 부분에는 여름철 헤르쿨레스 구상성단(M13)과 비교되는 구상성단이 있다. 메시에 목록 15 번에 기록된 구상성단으로 6등급의 밝기로 북반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구상성단 중에 하나이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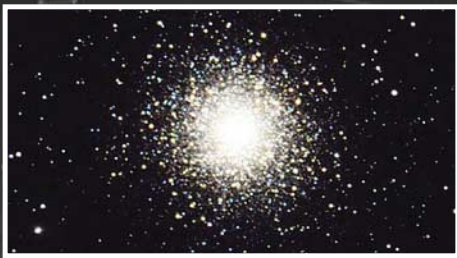


그림3. M15 구상성단

천상의 연인,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

페가수스의 배꼽 부분에 해당하는 별, 알페라츠(Alpheratz)는 1930년에 하늘의 별자리를 정리할 때 안드로메다자리만의 별로 결정되었다. 이 별이 공주 안드로메다의 머리에 해당되며, 그 뒤를 이어 몸과 다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찾을 수 있다. 별자리의 전체 모습을 이어보면, 마치 즐라만의 모습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페가수스자리와 연결해 보면, 커다란 얼굴(대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그려볼 수 있어, 하늘에서 쉽고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이다. (그림 4-2)



그림5. 안드로메다 은하



그림 4-1. 안드로메다자리

그림 4-2. 골룸

안드로메다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다. 메시에 목록 M31로 지정된 이 은하는 은하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게 보이는 나선은하로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한다. 공주의 오른쪽 무릎 부근에서 뿌옇게 보이는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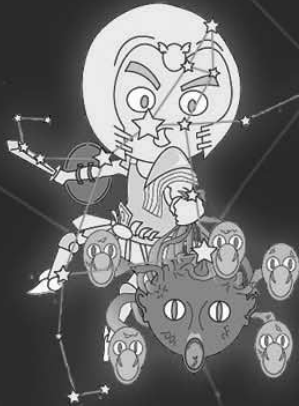


그림 6. 페르세우스자리



그림 7. 페르세우스 이중성단

안드로메다는 신화 속에서 에티오피아의 케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로 쇠사슬에 묶여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 고래의 재물로 바쳐졌으나, 페르세우스에게 구출되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괴물고래에게 재물로 바쳐져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그려볼 수 있다.(그림 4-1)

그녀의 뒤를 이어 커다란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하고 있는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 있다. 헤르쿨레스와 함께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알려진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죽이고, 그의 목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6)

이 별자리에서 메두사의 머리에 해당하는 별, 알골은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메두사의 머리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별의 밝기가 2.84일을 주기로 2등성에서 3등성으로 변화는 변광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별자리에는 대표적인 이중 성단이 있다. NGC 869, 884로 명명된 이 이중 성단은 쌍안경이나 저배율 망원경을 통해 주위의 은하수와 함께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7)

두 성단은 약 7,000광년쯤 떨어진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 위치해 있다.

허영심 많은 왕비, 카시오페이아와 왕 케페우스

북두칠성과 함께 북쪽 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자리이다. 이 별자리는 북극성을 찾는 길잡이 별자리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허영심 많은 왕비로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그녀의 딸인 안드로메다를 괴물 고래에게 재물로 바쳐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훗날 남편 케페우스 왕과 함께 별자리가 되었지만, 허영심의 대가로 하루의 반을 의자에 앉은 채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카시오페이아는 거꾸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8)

카시오페이아자리 왼쪽에 붙어 있는 케페우스자리는 카시오페이아의 남편이자 안드로메다의 아버지였던 에티오피아의 왕이다. 5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쪽 하늘에서 카시오페이아자리와 함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림 9)



그림 8. 카시오페이아자리



그림 9. 케페우스자리

그 외의 가을철 별자리들

위에서 살펴본 페가수스와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 카시오페이아, 케페우스는 하나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며 가족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이들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삼았던 괴물 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하늘에서 4번째로 커다란 별자리이지만, 밝은 별이 많지 않으며,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실제 밤하늘에서 전체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고래의 머리에 해당되는 으뜸별 멘카르(Menkar)와 몸통의 미라(Mira) 그리고 꼬리에 해당되는 데네브 카이토스(Deneb Kaitos), 이 세 별을 찾게 된다면, 하늘에서 고래의 전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이 중 미라(Mira)는 불가사의한 별이다. 최초로 발견된 변광성으로 약 330일을 주기로 그 밝기가 최대 2등성에서 10등성까지 변한다. (그림 10)



그림 10. 괴물고래자리

가을철에 볼 수 있는 황도 12궁

※ 황도12궁이란?

태양이 지나가는 길(황도에 위치한 12가지 별자리로, 과거에는 점성술에 이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탄생별자리로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가을철 밤하늘에선 주로 4가지 탄생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바다염소, 물병, 물고기, 양자리가 서쪽부터 동쪽으로 이어져 있으나, 밝은 별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찾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바다염소자리는 여름철 실제 견우성으로 알려진 다비흐란 이름의 별을 가지고 있다. 목동의 신, 판이 거인족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도망가다 주문을 잘못 외워서 상반신은 산양,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11-1)

물병자리는 페가수스자리 바로 남쪽에 있는 커다란 별자리이지만 뚜렷한 특징은 없다. 물병을 따르는 사람을 술을 나르던 청춘의 여신 헤베(Hebe)가 발목을 다친 후,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독수리에게 납치당한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이다. (그림 11-2)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묶여 있는 물고기자리는 유프라테스 강변을 거닐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가 거인족의 공격을 받고 물속으로 도망치면서 변신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림 11-3)

양자리는 황도 12궁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준분점이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물고기 자리로 옮겨 갔다. (그림 11-4)



그림 11-1 바다염소자리



그림 11-2 물병자리



그림 11-3. 물고기자리

그림 11-4. 양자리

출처 :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소식지 “류별”

문

화

원

소

직

■ 서산문화대상 및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 시 : 11. 24(수) 13:3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시상내용 : 서산문화대상 1명, 청소년문화상 3명

■ 문화가족 한마당

문화회원 및 문화가족의 화합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문화가족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11. 24(수) 14:0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내 용 : 다채회 및 문화공연
- 대 상 : 서산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식 및 발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11. 26(금) 10:3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문예관람실
 - 일일체험 : 클레이아트
 - 수료식 : 수료증, 개근상 및 공로패 시상
 - 발표내용 : 플룻, 바이올린, 전통무용, 요가, 난타, 벨리댄스, 장구 등
 - 전시내용 : 한국화, 수채화, 풍선아트, POP, 가베, 규방공예, 자수공예 등
- ※ 프로그램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0 지역명예교사사업 작가 유용주와 떠나는 역사와 문학이 함께 하는 기행 (2차모집)

청소년의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의 문학인을 돌아볼 수 있는 문학 기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명예교사 : 유용주(문학가)
 - 일 시 : 1차 - 종료 2차 - 11. 27(토)~28(일)
 - 장 소 : 서산, 흥성, 보령, 장수
 - 대 상 : 1차 - 종료 2차 - 고등학생 30명
 - 접수일 : 10. 27부터 선착순 모집중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또는 학교 공문 접수
 - 참가비 : 1인 2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관련 신분증 또는 서류 제출)
- 문 의 :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





시 | 정 | 소 | 식

2010 관광서산 전국사진공모전

2010. 10. 20 ~ 11. 20

▶ 응모방법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료 : 20,000원
- 작품내용 : 서산의 자연경관과 축제 및 전통문화 체육행사, 문화유적, 풍속, 관광지, 농수산물, 레저활동 생활상 등 사계절 최근사진
- 작품규격 : 11x14흑백 및 칼라사진(슬라이드인화포함)디지털 사진
- 출 품 수 : 5점 이내
- 접 수 처 : (우)356-805 충남 서산시 읍내동 495-1(사진나라)(041)665-6645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3290
- 연락처(문의처)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3290
-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작품제목, 촬영일시, 장소, 우편번호, 주소, 성명, 휴대전화번호
- 심사일시 : 2010년 11월 27일
- 심사장소 : 서산시청 대회의실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결과발표 : 서산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사협 홈페이지

▶ 시상내역

- 금상 1점 서산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2점 서산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 3점 서산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협 서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입선 70점 이내 (사)한국사협 서산지부장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전시내역

- 개전 및 시상일시 : 2010년 12월중
- 전시기간 : 추후공지
- 작품반출 : 시상식 후 개별반송
- 시상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소회의실
- 전시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의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중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김덕환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진인항 (서산시 수석동) 20,000원 |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1,000,000원 | • 서산박척지놀이보존회 300,000원 |
| • 송중학 (서산시 인지면) 30,000원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 • 유병인 (서산시 읍내동) 30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지난 10월호(324호) 「청전 이상범의 모추」 내용중 16페이지에서 「1987년」을 「1897년」으로 정정합니다.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